

댄스스포츠의 즐거움 만끽

23~24일 전주실내체육관서 '2024 전주 댄스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3~24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2024 전주 댄스스포츠 페스티벌(JID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는 선수들의 훈련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초·중·고교 및 대학부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로 경기가 치러진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겸해 열린다. 특히 지난 1·2·3차 선발전을 거쳐 올라온 리턴 12커플과, 스탠다드 12커플이 국가대표 3자리석을 두고 대결을 펼친다.

'제1회 회장에 전국 라인댄스 대회'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창설된 첫 번째 대회로, 7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출전 가능하며 개인전과 마라톤, 단체전 등 다양한 경기를 선보인다.

아울러,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전주 시티 미션 투어 프로그램과 전주 특색 상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주 시티 미션 투어는 댄스스포츠 경기와 전주시 관광 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으로서 전주시



의 문화예술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투어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 전주남부시장, 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해 스탬프 미션 참여시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전주 특색상품 홍보관을 실내체육관 내외부에 설치해 대회 관람과

더불어 전주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2024 전주 댄스스포츠 페스티벌(JIDF)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광객이 댄스스포츠 대회를 경험함과 동시에 전주시 관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며 "전주시가 관광거점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강일성 회장은 "댄스스포츠는 단순히 아름답고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밸런스, 호흡,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오랜 전통의 스포츠"라며 "전국의 댄스스포츠 강자들이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댄스스포츠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외는 전주문화재단(063-211-0288)이나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02-415-209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직무정지 통보→이기흥 회장 법적 대응

문체부 "법률에 따른 조치"

내달 집행정지 심문 진행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년임 도 전과 체육회장 직무를 두고 이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할 경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 9월 문체부는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체육회장이 임명한 위원에게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에서 "(체육회장 연임 승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처럼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면 체육회, 문체부와 관계없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관련 규정을 지금 바꾸려는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초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 체제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돼 공정한 심의에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결국 이 회장의 3년임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스포츠공정위는 독립적 의사결정권이 있다. 내부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수용할지 안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위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

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인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상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에 체육회는 이 회장을 비롯한 종무단체장들의 연임 심사를 이를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한 것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져본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놔다.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은 다음 달 열린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 통보를 한 것이다. 업무 방해나 배임, 횡령 등 이중 하나라도 혐의가 있으면 체육회장 결정 사유에 해당된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가 나와서 법률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프리미어 12 예선 마치고 귀국

세계아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대표팀 김도영, 박영현 등 선수들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출마 공식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낸 유승민이 제24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측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전 회장은 출마

배경과 공약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 전 회장은 2019년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별세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리더십 공백으로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상황을 잘 수습해 1년 7개월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친 뒤 2020년 12월 선거에서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유 전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9월 탁구협회장에서 물러났다.

/뉴시스

전국 등산 동호인 축제, '순창의 명산' 강천산서

23일 제1회 강천산배 등산대회

순창군의 명소인 강천산에서 전국 등산 동호인들을 위한 뜻깊은 축제가 열린다.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제1회 강천산배 등산대회'가 오는 23일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순창의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등산 문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실제로, 대회 장소인 강천산은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고, 특히 가을철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대회에는 순창군민 300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의 등산 동호인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급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진행요원 10명을 배치하는 등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참가자들을 위한 음향시설과 몽골텐트, 휴식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단순한 등산대

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모이는 참가자들을 위해 순창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어, 순창의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대회는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등산 문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배드민턴 안세영, 중국 마스터스 첫판 승리

32강전서 인타논에 2-1로 눌러... 16강 진출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 여자 단식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9일 중국 선전의 선전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략차늑 인타논(태국·세계 18위)을 게임 스코어 2-1(24-22 15-21 21-19)로 눌렀다.

1게임에서 17-20으로 뒤처지며 패색이 짙었던 안세영은 연속 3집을 생산

해 승부를 듀스로 끌고 갔다. 이후 22-22에서 연거푸 득점을 올려 기선을 제압했다.

2게임 내내 끌려다닌 끝에 결국 스코어 동점을 한 안세영은 혈투 끝에 3게임을 따내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안세영은 지난 8월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무릎, 발목 부상 치료를 위해 2개월 동안 휴식과 재활에 매진했다.



지난달 전국체전과 덴마크 오픈을 통해 복귀한 안세영은 건재한 기량을 뽐냈다. 복귀 후 첫 국제대회인 덴마크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본 공연은 (주)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소리꽃피다

이대혁 | 베이스

이윤정 | 피아노

강지수 | 바이올린

김성민 | 보컬

이상욱 | 기타

정효준 | 디제이

심재민 | 해금

이정인 | 소리

2024. 11. 22(금)

7:30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티켓 | 전석 10,000원

예약 | 소리꽃피다 검색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주최·주관 | 문화재단

후원 | JCT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매일신문